【1】 第20276號 【1955·2·21第3種郵便物(가)급認可】【1964·1·1登錄番號 가—2號】 The Dong-A Ilbo 【1920年4月1日創刊】 1987年8月26日 水曜日 ② 〔日刊〕

東亞日報

會長 金相万
社長 金炳琯
發行人 金炳琯
編輯人 權五琦
印刷人 [illegible]
編輯局長 南時旭

서울鍾路區世宗路139(우110)
交換(代) 733-5221, 5231
編輯局 733-6103, 6104
廣告局 733-6107, 6108
配達事故 733-6105, 6106
購讀申請 734-8804, 8806
出版局·文化센터 783-5111, 5231
購讀料 月定 2,700원 1部 130원
本報는 新聞倫理綱領및 그 實踐要綱을 遵守한다.

國會 言論관계法 심의착수

文公委 小委구성 各黨제출 10개法案 압축작업

27、28일 매체별公聽會

新聞시설기준·放送公營제도 爭點

興野는 현행언론기본법을 폐지한다는데 의견을 모으고 그 代替立法으로 신문과 방송에대한 새로운 언론관계법 제정에 나섰다.

이와관련, 興野는 26일 국회문공위를 소집, 그동안 民正 民主 국민당이 각각 제출한 언론관계법에 대한 구체적 심의에 들어갔다.

언론의 활성화를 목표로하고있는 새로운 언론관계법제정문제는 興野가 추진하고있는 民主化조치의 중요한부분이며 또 앞으로있을 대통령선거등 정치일정의 진행과도 밀접한 관계가 있다는 점에서 많은 관심이 쏠리고 있다.

그러나 새로운 언론관계법 제정과 관련, 현재까지 나타난 興野및 각당의 입장에 상당한 차이점이 노출돼 논란이 예상된다.

현재까지 드러난 주요쟁점은 크게보아 △興野가 단일안을 만들수 있는지의 여부 △신문관계법에서 시설기준과 등록취소문제 △방송분야에서 公營방송 一元化와 民營방송부활 二元化등으로 요약되고있다.

현재 신문부문과 관련, 시설기준에 대해서는 興野가 25일의 8인정치회담에서 헌법상의 「시설기준」규정을 삭제하고 「신문의 기능을 보장하기위해 필요한 사항은 법률로 정한다」고 합의했으나 법률에서 구체화될 시설기준의 폭에 대해서는 야당측이 대폭 완화를, 民正측은 어느정도의 시설기준을 주장하고 있어 이견을 보이고 있다.

또 신문사의 등록취소규정에서는 民正측이 현행의 문공장관재량에다 심사기구를 두자는 입장인데 반해 民主黨측은 법원판결에 의해 등록을 취소케 하거나 아예 규정을 두지말아야한다고 주장하고 있다.

방송부문에서는 民正측이 현행 공영방송체제를 유지하는 선에서 문공부의 권한에 대한 견제장치를 강화한다는 입장인 반면, 民主黨측은 대체입법과 시행령마련 기간중 차기 대통령선거 국회의원선거를 현행 방송체제에서 치르게되는 만큼 限時的「방송관리임시조치법」을 제정하자고 주장하고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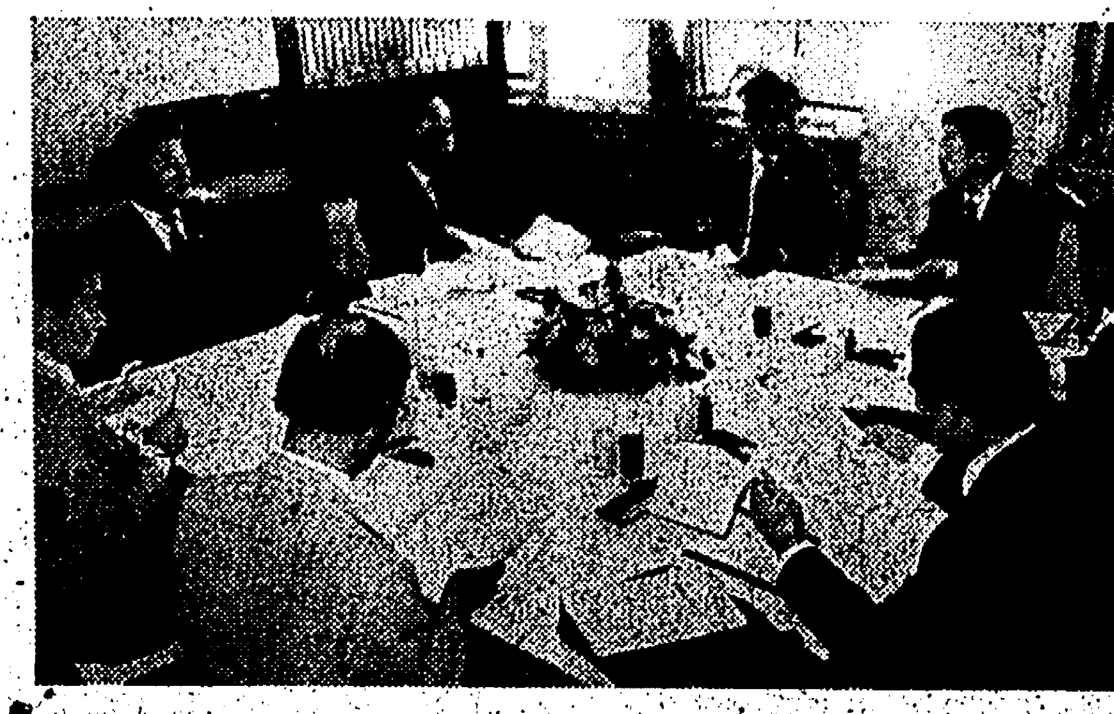
民主黨측은 또 「정치전환기에 공영방송의 편파보도를막기 위해서는 임시조치법을만들어 15인규모의 방송관리위원회를 두고 兩大선거를 치른뒤 民營방송부활방향등을 명시한 입법을 해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다.

한편 국회 문공위는 26일오후 최근 民正 民主 국민당등이 제출한 언론관계법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듣고 모두 10가지에 이르는 법안을 3、4종으로 압축시킨다는 목표로 법안심의 小委를 구성할 예정이다.

문공위는 또 27、28일 이틀간 학계 언론계인사들을 초청, 국회예결위 회의실에서 공청회를 열 예정이다.

興野가 국회에 현재 제출해 놓은 법안은 △언론기본법폐지법률안(民主 국민) △신문통신등의 등록에 관한 법률안(民主) △정기간행물법률안(民正 국민) △방송에 관한 법률안(民正 국민) △공정방송관리를 위한 임시조치법안(民主) △한국방송공사법개정안등 10件이다.

27、28일의 공청회공술인은 金珖涉원로언론인 鄭環暮한국일보논설위원 徐正宇연세대교수 彭元順한양대교수 愼洪範民言協실행위원 韓勝憲변호사 崔瑞泳코리아헤럴드전무 鄭求運기자협회장(이상 인쇄매체분야공술) 李憲馥전KBS해설위원 李相回연세대교수 李正春중앙대교수 金容九前한국일보논설위원 金道鎭KBS방송본부장 趙炳海CBS상무(이상 전파매체공술)등이다.



民正 民主양당의 8인정치회담대표들이 28일로 박두한 협상 시한을 앞두고 25일오후 미합의 쟁점조항에 대한 막바지 절충을 벌이고 있다.

國政감사권 두기로 확정

8人회담 「5年거주」삭제·無所屬출마 허용

民正 民主양당은 25일오후 8인정치회담 제13차 회의를 열고 △대통령입후보자 요건 관련, 「계속5년이상 국내거주」부분삭제및 무소속후보 대통령출마의 전향적검토 △국회에 국정감사권과 조사권을 모두 부여한다는등에 합의했다.

양당대표들은 이날 회의에서 8인개헌협상을 28일까지 완결, 31일의 「盧泰愚-金泳三회담」에 넘기지 않는다는 원칙에도 합의했다. 8인정치회담은 26일오후 14차회의를 열어 △대통령의 임기, 권한 △선거연령등 중요쟁점을 집중논의한다.

25일의 회담에서 최대쟁점중 하나였던 대통령입후보자의 자격요건중 「계속 5년이상 국내거주」 조항(현행헌법및 民正案)은 절충끝에 民正측이 △民主黨요구대로 삭제하거나 △「계속」문구를 빼는 방안등을 검토, 조문을 정리키로 했으며 대신 民主黨은 「대통령후보자의 정당추천」조항에서 후퇴, 무소속출마의 허용을 검토키로 했다.

국회의 국정감사및 조사권 문제는 民正案과 民主案을 절충, △국회에 국정감사및 조사기능을 모두 부여하되(民主案) △감사대상 범위 절차등 사항은 법률로 정하기로 했으며(民正案) △재판과 진행중인 범죄수사및 소추에 간여할수 없도록한 民正案도 삭제키로했다.

신문의 시설기준에 관해서는 「통신 방송의 시설기준과 신문의 기능을 보장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은 법률로 정한다」는 조항을 명시키로 했다.

또 언론 출판에 대한 허가 검열 금지조항중 문제가돼왔던 영화 연예부문은 이를 삭제키로했다.

단체행동권 제한범위는 民正案에서 「법률이 정하는 주요방위사업체」는 병기 탄약 한정 군용기능을 생산하는 업체를 의미하는 線에서 법률을 제정할때 철저히 규정하도록 의견을 모았다.

8월 무역收支 赤字反轉

작년5월이래 15개월만에

勞使분규 영향

노사분규로 인한 생산차질로 수출증가율이 크게 둔화되고 있는 반면 수입은 계속 늘어나 작년5월이래 흑자를 보여온 무역수지가 이달들어 15개월만에 다시 적자로 돌아섰다.

26일 상공부에 따르면 이달들어 24일현재 수출실적은 21억7천5백만달러로 작년 동기대비 24·6%늘어난 반면 수입은 이보다 훨씬 많은 26억3천5백만달러로 31·6%나 증가했다.

이에따라 무역수지는 4억6천만달러 적자를 나타냈다.

상공부관계자는 지금까지 추세를 보면 월말에 수출이 집중적으로 이뤄져 적자를 보였던 무역수지가 흑자로 돌아서는 경우가 많았다고 설명하고 그러나 이달중엔 노사분규로 인해 2억달러이상의 수출차질이 빚어지고있어 월말까지 가더라도 무역수지의 적자가 불가피할것으로 예상된다고 말했다.

이달 들어 수출신용장(LC)내도액(24일현재)도 17억1천4백만달러로 작년동기대비 31·9% 늘어났으나 수입승인금액이 20억4천4백만달러로 40·1%나 급증, 이같은 추세가 계속될 경우 앞으로 수입이 수출을 계속 앞질러 다시 무역수지 적자상태를 면키 어려울것으로도 예상된다.

수출업계는 이달초 한때 일부 항만에서의 파업으로 중단됐던 수출품선적및 통관은 그뒤 정상적으로 이뤄지고 있으나 산업체의 파업및 휴업에따른 생산차질로 수출납기를 맞추지 못하는 사례가 늘어나 전체수출증가율이 둔화되고있다고 설명했다. 여기에다 해외바이어들의 수출상담도 점차 줄어드는 추세여서 수출둔화현상은 올연말이후 내년에 본격 나타날것으로 보고있다.

駐아일랜드大使임명장 全大統領

全斗煥대통령은 26일오전 신임 李祺周駐「아일랜드」대사와 金現坤駐「자이르」대사에게 신임장을 수여했다.

保社委 勞使小委

政府 적극개입 촉구

與野는 25일오후 李憲琦노동부장관등을 출석시킨가운데 국회보사위勞使문제대책小委를 열고 정부측으로부터 大宇조선등 심각한 양상을 보이고있는 勞使분규현황을 청취하고 정부와 기업주가 勞使분규해결을위해 적극 노력할것을 촉구했다.

<4면에 관련기사>

與野의원들은 이날회의에서 정부측을 상대로 질의를 벌인뒤 △모든 노사분규에는 경영주가 직접 나서서 근로자의 정당한 요구를 적극 수용, 분쟁을 해결하도록 정부가 해당기업에 종용하고 △근로자의 불법해고등 부당노동행위가 있을때에는 그 사용주에 대해 정부가 법적 강제력을 행사할 것등 2개항을 마련, 정부측에 촉구했다.

勞使小委는 26일오후 회의를 속개하고 25일회의에서 합의를 보지못한 노사분규업체에 대한 興野공동조사단구성문제를 계속 논의한다.

25일 회의에서 李노동부장관은 현황보고를 통해 「6·29선언이후 24일까지 모두 1천8백27건의 노사분규가 발생했으며 이중 68·5%인 1천2백51건이 해결됐고 5백76개사업장에서 분규가 진행중」이라고 밝혔다.

李장관은 또 「같은기간동안 2백16개업체의 휴업이 있었으나 그중 1백13개업체가 현재 정상조업중이며 1백3개업체가 계속 휴업중」이라고 보고했다.

西사모아首相28일訪韓

「바이 콜로네」西「사모아」首相이 金貞烈국무총리 초청으로 오는 28일부터 5일간 우리나라를 방문한다고 26일 외무부가 밝혔다.

3版! 新東亞 9월特大號
金大中과 軍部/全敬煥과 새마을운동本部
盧泰愚의 브레인들/베일에 가린「聖域」日海財團
朴大統領、金大中에게 副統領 제의했다
「光州사태」5가지의문점/「6·29의 幕後人物」金復東
勞使분규의 現場

外部세력 개입不容

金총리 大宇분규관련 밝혀 내일 特別담화

金貞烈국무총리는 26일오전 大宇玉浦조선 노동쟁의사태와 근로자 李錫圭씨사망과 관련, 「근로자 한사람이 목숨을 잃는 사건이 발생하게되어 대단히 가슴아프고 유감스럽게 생각한다」면서 「그러나 외부세력이 개입하여 유가족의 의사와 전통적인 장례절차를 무시하고 이를 정치적으로 이용하려는것은 영령을 욕되게 하는것」이라고 말했다.

金총리는 또 「외부세력의 이러한 기도는 사태의 원만한 해결을 어렵게할뿐 아니라 인근주민의 생활에도 막대한 지장을 주고 있다는 점에서 도저히 용납될 수 없다는 점을 지적해둔다」고 말했다.

金총리는 27일 오전 최근의 勞使분규에 대한 정부측의 입장과 대책을 밝히는 특별담화를 발표할 예정이다.

外勢침투 우려할일

民正 성명

民正黨은 26일 당직자회의를 열고 在野측이 勞使분규를 정치투쟁으로 비화시키고 전국총파업까지 시도하려는데 대해 우려를 표명하는 성명을 채택, 李敏燮대변인을통해 발표했다.

新民黨 黨職者 개편

新民黨 李敏雨총재는 26일 당직을 개편, 사무총장에 柳甲鍾의원 원내총무에 鄭在原의원 정책심의회의장에 徐鍾烈의원을 임명했다.

또 훈련원장에 金漢洙의원 인권옹호위원장에 申敬說의원 당기위원장에 金炳洙의원 대변인에 李健一의원을 각각 임명했다.

중앙상무위의장에는 辛達洙의원이 내정되었다.

美시거차관보 내달중순訪韓

【東京聯】 美국무성의 「개스턴 시거」 東아시아 太平洋담당차관보가 오는 9월14일부터 17일까지 韓國과 日本을 차례로 방문, 양국 고위당국자들과 회담을 갖는다고 日本의 「교도」(共同)통신이 美국무성당국자의말을 인용, 25일「워싱턴」발로 보도했다.

公務員 勞組협의회

봉급22·7% 인상요구

<4면에 관련기사>

전국공무원노동조합협의회는 26일오전 『하위직 공무원의 보수는 사실상 민간기업의 70%를 넘지못하는 박봉』이라고 주장하면서 공무원의 처우개선을위해 내년도 봉급을 22·7% 인상할것(기능직8등급7호봉기준 현47만5백원에서 57만7천2백원)을 요구했다.

民主 조사단성명

책임자 문책따라야

【巨濟=黃鎬澤기자】 민주당의 고李錫圭씨 사망진상조사단(단장 崔炯佑부총재)은 25일 巨濟현지에서 성명을 내고 『당국의 과잉진압과정에서 일어난 최루탄발사가 李씨사망의 직접적이고 유일한 원인이었음이 분명해진이상 이에 상응하는 고위책임자의 문책과 아울러 당국의 국민과 유가족에 대한 공식사과가 있어야 한다』고 주장했다.

횡설수설

臺灣의 올해 한사람 GNP(국민총생산)가 마침내 5천달러에 이를 전망이다。 外紙가 전하는 1단짜리 이 작은 기사가 문득 가슴에 와 찍히는 까닭이 무엇인가。 NICS(신흥공업개발국) 4개국이라면 흔히 韓國 臺灣 「싱가포르」「홍콩」을말하는데 두都市국가의 한사람GNP는 벌써 5천달러를 넘었다。 이제남은두나라중 臺灣이 빠져나가면 韓國은외롭게 後發途上國의 자리를 지켜야한다

◆

臺灣경제는 不可思議한 점이 많다。 작은섬나라에 많은 인구가 모여 오밀조밀한 경공업제품을 무더기로 수출하면서 對外준비고 5백억달러, 무역흑자만 1백56억달러를 기록한다。 돈이 쌓이는데 투자나 소비대신 저축만하는 통에 애를 먹는다。 최근에는 野黨이 발족하고 원주민들의 反體制운동이 일어나는등 정치적 변화조짐이 보이고 있으나 경제운용에 큰 무리를 줄 정도는 아닌가보다。 이를 가리켜 臺灣의 통치기술이 일품이라고 말하는이도 있다

◆

작년 가을 訪韓했던 臺灣工商協進會의 「쿠제푸」회장이 自國상품의 높은 경쟁력을 우수한 기능공때문이라고 본것은 우리에게 시사하는바 크다。 한국보다 공업화 역사가 길다보니 기능공의 축적이나 숙련도에서 기본적으로 유리하다。 거기다 9년제 의무교육을 통해 기능공의 교육수준을 높인 결과 .기술습득력이 커진 때문이라는 것이다

◆

한국 근로자들의 교육수준이 과연 臺灣에 비해 떨어질까, 결코 그렇지 않다고 본다。 최근 勞使분규 추이에서 나타나듯이 적어도 中卒 또는 高卒이상의 학력자들이 많다。 이들은 설득력있는 조건이라면 마다할 리 없다。 좀 더 다독일줄 아는 使의 입장이 아쉽다。 그러나 설득력있는 조건은 받아들일 줄도 알아야한다。 결국 臺灣과의 차이는 그런데 있는게 아닐까

◆

8월들어 무역수지가 赤字로 바뀌었다。 모처럼 흑자시대라고 떠들기 시작한게 작년 5월。 불과 15개월만에 우리는 다시 赤字國으로 돌아섰다。 겨우 GNP 3천달러시대앞에서 赤字國으로 좌절하는 우리를 보는 臺灣人들의 눈길이 궁금하다。

노후설계연금보험
노후를 위한 연금보험
단체퇴직연금보험
보험상담:784—7962
대한생명

8월의 추천제품
가격은 뮤직센터, 기능은 콤포넌트!
대우 오디오 시스템
●복사는 물론, 편집까지 척척(더블데크)
●자유로운 음색조절 (5단 이퀄라이저)
ACS-670 (장식장포함)
파격적인 가격 ₩348,000
전화주문:(02)753-8282
대우전자

세계의 리복—
이제 한국에서도 도전받겠읍니다.
리복의 세계는 비교될 수 없읍니다.

정상을 향한 수많은 도전.
그러나, 리복의 세계와는 결코 비교될 수 없읍니다.
19세기 영국 정통수제화의 명품으로 탄생하여
세계 스포츠화시장을 석권한 리복의 명성.
리복의 품격— 이제, 한국에서도
새로운 스포츠화 시대를
예고합니다.

전국주요도시의 리복판매점

세계를 감동시킨 제3시대 스포츠화
Reebok®
韓國리복(株) 화승그룹